

개화기 도시공간과 생활세계 이해를 위한 텍스트 교차 읽기

-『서유견문』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 수록된
시장·거리·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심 명 주*

목 차

- I. 머리말 : 텍스트 교차 읽기
- II. 시장과 거리
- III. 상업 활동의 주체
- IV. 소결 : 시선의 교차 읽기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과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1898)에 기록된 개화기 조선의 도시 공간과 생활세계를 시장·거리·상업 활동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두 텍스트는 동일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이한 인식과 관점에서 저술되었다. 유길준이 서양 문명의 제도와 공간 원리를 번역·수용하는 규범적 시선을 보인다면, 비숍은 조선땅의 현장 관찰자로서 조선 도시 생활의 복합적 현실을 기록한다. 다만 비숍의 기록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문명관과 제국적 시선을 통해 구성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본고는 두 저술을 사실성의 우열로 견주기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산출된 상보적 서술로 읽는다. 텍스트의 고찰 결과, 두 저술이 보여주는 개화기 도시 공간은 단선적 근대화 서사로

* 沈明柱 國立陽明交通大學博雅書苑 研究員 secolaw@naver.com

투고일: 2026. 4. 30. 심사완료일: 2026. 6. 14. 게재확정일: 2026. 7. 13.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75>

환원될 수 없는 다층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장 공간에서 유길준이 구상한 근대 상업 질서와 비숍이 목격한 시전·난전의 혼재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며, 거리 경관에서 문명의 지표로 거론되는 도로 이상과 오물·소음·활기가 공존하는 현실 사이의 차이, 상업 활동의 주체 측면에서는 유길준의 추상적 상인 주체 상정과 달리, 비숍의 서술에서는 하층민·보부상이 실질적 상업 공간의 담당자로 부각된다. 이러한 방법의 교차 독해는 개화기 도시 생활세계를 이상과 현실, 내부자와 외부자, 규범과 실천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핵심어 | 개화기, 도시 공간, 생활세계, 서유견문,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유길준, 이사벨라 버드 비숍

I. 머리말 - 텍스트 교차 읽기

1895년 간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1898년 출판된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은 개화기 조선을 대표하는 저술에 속한다.¹⁾ 전자가 서양 문명의 제도와 공간을 번역·소개하는 지식인의 규범적 글쓰기라면, 후자는 1894년부터 189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한 영국 여행가의 현장 관찰 기록이다. 두 텍스트는 동일한 역사적 국면 —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독립협회 운동, 개항 이후 상업·도시 공간의 급변 — 속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쓰여진 책들이다.

기존의 두 저술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각자의 맥락 안에서 독립적으로

1) 본고는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유길준, 이한섭 역, 『알기 쉽게 번역한 『서유견문』』, 박이정, 2021. 과 www.archiver.org에 공개된 Bird, Isabella L. (Isabella Lucy), *Korea and her neighbors :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 Chicago F.H. Revell Co., 1898; I.B.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urs)』, 2024 를 참고하였다.

내용들을 다루어 왔다. 유길준 연구는 주로 근대 정치학·비교 사상사 시각에서 접근하였고,²⁾ 비숍 연구는 여행기 문학 혹은 제국주의적 시선 비판의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었다.³⁾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텍스트를 대상으로 “교차 읽기”를 시도해 봄으로써 개화기 도시 공간 — 특히 시장·거리·상업 활동 — 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근대 도시를 그려내는 방식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언뜻 거리가 먼 저술들로 보이지만 외국인이 목격한 조선의 도시와 거리 현실과 동시대 조선 지식인이 상상한 도시와 생활 풍경 사이의 간극을 함께 읽어 거리와 생활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동시에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다시말해, 근대화라는 큰 흐름 앞에서, 한편으로는 조선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의 현장 체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문명을 경유한 조선 지식인의 정책 구상으로 도시 공간에 접근한 두 시선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거리, 상업 활동의 주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개화기 도시 생활세계를 바라보는 다층적 시각과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유길준이 번역·구상한 근대 시장과 비숍이 목격한 조선의 시전·난전의 비교를 통해 두 저자의

2) 이광린, 「유길준의 개화사상: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75·76, 1977;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장인성, 「유길준의 문명사회 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 유길준, 후쿠자와 유키치, 존 힐 버튼의 사상연쇄」, 『개념과 소통』 23, 2019, 189-235 쪽; 우찬제,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수사적 상황과 간접화된 풍경」,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7(3), 2021, 167-191. 쪽.

3) 신문수,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김희영,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2007; 홍순애, 「근대계몽기 여행서사의 환상과 제국주의 사이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 2010.

견해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문명의 지표인 도로 이상과 오물·활기가 공존하는 현실 거리 사이의 긴장은 어떻게 독해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두 텍스트에서 상업 주체에 대한 이해는 성별·계층·신분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상술한 의문들을 통해 본고는 개화기 도시 공간을 이상과 현실, 내부자와 외부자, 규범과 실천이 중층적으로 교섭하는 당시의 생활세계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이 지점에서 본고가 택한 ‘교차 읽기’의 성격과 절차를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교차 읽기는 두 텍스트를 동등한 자격의 자료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가리는 단순 비교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오히려 동일한 대상—시장, 거리, 상업 주체—이 서로 다른 저술 위치와 장르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구성되는가를 드러내고, 한 텍스트가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른 텍스트의 자리에서 되읽어 보려는 독법이다. 따라서 비교의 단위는 『서유견문』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저작 전체가 아니라, 두 텍스트가 공통으로 언급하는 도시 생활세계의 특정 국면이며, 분석의 초점도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가 아니라 각각의 서술이 무엇을 보이게 하고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에 놓인다.

두 저술이 장르와 집필 맥락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은 이러한 독법에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의 전제가 된다. 규범적 정책 구상으로서의 『서유견문』과 현장 여행 기록으로서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은 애초에 같은 종류의 진술을 의도한 텍스트가 아니므로, 본고는 양자를 동일한 사실성의 척도로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이질적인 두 텍스트를 같은 분석 단위로 다루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교의 범위를 다음 두 조건으로 한정한다. 첫째, 비교 단위는 두 텍스트가 동일한 대상 영역—시장, 거리, 상업 주체—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대목으로 제한하며, 그 밖의 영역으로 해석을 확장하지 않는다. 둘째, 각 서술은 그 저술의 목적(규범적 처방인가 관찰 기록인가)과 저자의 위치(내부의 개혁 주체인가 외부의 여행자인가)라

는 조건 위에서 읽으며, 그 조건이 해당 서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렇게 읽을 때 두 텍스트의 차이는 진위(眞僞)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서로 다른 인식 틀이 산출한 상보적 정보로 재배치될 수 있다.

II. 시장과 거리

1. 두 텍스트의 맥락

유길준(1856~1914)은 조선 최초의 공식 미국 유학생으로, 1883년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도미하여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의 피바디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1885년 귀국 후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탈고한 『서유견문』은 1895년 도쿄에서 간행되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한 견문록이 아니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과 스펜서적 사회진화론, 그리고 유교적 공론장 담론이 복잡하게 얹힌 기획물이었다.⁴⁾

『서유견문』이 저술된 제반 조건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의 위치와 경험세계이다. 유길준은 한 측면에서 조선의 지식인·관료로서 국가 개혁의 필요를 절감한 주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문명을 직접 체험한 소수의 특권층에 속한 관찰자이다. 그의 저술은 서양의 근대 제도와 공간을 조선 독자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조선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향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서유견문』의 도시·상업과 관련된 서술은 현재의 기술(記述)이 아니라 미래 처방(處方)의 측면을 다분히 갖고 있다. 이는 저술의 목적에서 비롯된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길준의 글쓰기는 조선의 상업 현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려는 관찰 보고가 아니라, 조선이 나아가야 할

4) 유길준, 허경진 역, 앞의 책, 17-27쪽.

방향을 제시하려는 규범적 정책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도시·상업 서술이 당대 조선의 현장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관찰의 실패라기보다 처방을 의도한 텍스트의 장르적 속성에 가깝다. 다만 그 처방이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진단보다 서구·일본에서 수용한 이상적 모델에 더 크게 기대고 있었다는 점은, 뒤에서 살펴볼 비숍의 현장 기록과 견주어 읽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은 빅토리아 시대의 저명한 여행 작가로, 일본·중국·인도·페르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그녀는 1894년 서울에 처음 방문했고 그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은 이 경험을 정리한 결과물이다.⁵⁾ 비숍의 텍스트는 예리한 현장 관찰과 상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수작으로 메리 루이즈 프랫(Mary Louise Pratt)이 말하는 “접촉 지대(contact zone)”의 산물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다.⁶⁾ 다만 비숍의 텍스트를 접촉지대(contact zone)의 산물과 연관짓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랫에게 접촉지대란 단순히 이질적 문화가 마주치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리적·역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주체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공존하게 되면서 그 궤적이 서로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을 가리킨다. 그곳은 식민지적 조우가 흔히 그러하듯 강제와 불평등,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내포한 ‘극도로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만, 동시에 그 비대칭이 일방적으로만 관철되지는 않는 상호작용의 장이기도 하다. 접촉지대의 관점은 여행자와 ‘여행되는 자(the travellee)’의 관계를 분리와 일방적 재현이 아니라 공존·상호작용·맞물린 이해라는 차원에서 다시 보게 하며, 지배 문화의 재현 자체가 피지배 집단의 응답과 전유(轉有), 곧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에 의해

5) Bishop, op.cit, pp 5-6. Author's prefatory note.

6) 김남혁, 「제국주의와 여행서사 - 메리 루이즈 프랫의 연구를 중심으로 -」, 『현대문화이론연구』60, 2015, 131-161쪽.

끊임없이 굴절됨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숍의 저술이 접촉지대의 산물인지 묻는 일은, 그 텍스트가 단지 제국의 시선으로 조선을 대상화하는 데 그치는가, 아니면 조선인들의 시선과 행위가 관찰자의 위치를 되받아 상대화하는 상호적 구조를 실제로 보여주는가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된다.⁷⁾

이때 주의할 것은 비숍의 서술 태도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비숍의 강점으로 꼽히는 ‘객관적 관찰자’의 자세 — 세부에 대한 집요한 기록, 전체를 굽어보는 시선, 대상을 분류하고 위계화하는 어법 — 는 가치중립의 표지가 아니라, 프랫이 ‘반정복(anti-conquest)’이라 부른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재현 전략에 가깝다. 프랫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의 여행자는 정복자의 폭력을 전면에 드러내는 대신, 풍경을 조망하며 명명하고 목록화하는 ‘바라보는 자(seeing-man)’의 무해해 보이는 시선을 통해 오히려 지배의 권위를 자연화한다. 비숍이 서울의 거리를 불결과 무질서로 진단하고 상점과 상인을 품목별로 정연하게 기록할 때, 그 ‘객관성’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이 아니라 문명의 척도를 준 관찰자의 우월한 위치를 전제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성취다. 따라서 그녀의 객관적 관찰과 빅토리아 시대 문명관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의 형식을 빌려 작동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찰자의 시선이 어떻게 접촉지대를 구현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해 접촉지대는 이 조망하는 시선이 관찰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어긋나고 중단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비숍이 군중에 둘러싸여 응시의 대상이 되거나, 흥정의 상대에게 가격을 되받아치며 거래에 말려들거나, 1년의 체류 끝에 자신의 첫 판단을 뒤집을 때, 풍경을 일방적으

7)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2015. 접촉지대(contact zone)와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그리고 여행되는 자(the travellee)에 관한 논의는 이 책의 서론을 참조. 원저는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 Routledge, 1992.

로 장악하던 ‘바라보는 자’의 위치는 흔들리고 상호적 교섭의 공간이 열린다. 요컨대 비숍의 텍스트에는 두 개의 상이한 서술 층위가 공존한다. 하나는 대상을 분류하고 진단하는 반정복의 조망적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선이 현지의 응답에 부딪혀 상대화되는 접촉지대의 국면이다. 본고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이며, 비숍을 단순한 ‘객관적 관찰자’로만 읽어온 기존의 독법이 놓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비숍의 텍스트는 제국적 담론 재생산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지 생활의 구체성을 상세히 서술하며, 세밀한 관찰과 현장감을 보여주는 강점을 갖는다. 그녀는 시전의 배치, 상인들의 행위, 거리의 냄새와 소음, 여성 행상의 품목과 흥정 방식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이는 당대 조선 도시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비숍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곧장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관찰 역시 특정한 위치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숍은 빅토리아 시대의 문명 관념과 위생 담론, 그리고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제국적 시선을 공유한 외부 여행자였고, 무엇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별하고 무엇을 ‘이국적’이거나 ‘불결한’ 것으로 범주화할지는 이러한 인식 틀에 의해 상당 부분 조건 지어져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비숍의 서술을 유길준의 규범적 구상에 대비되는 투명한 사실의 창(窓)으로 다루기보다, 그 자체가 선택과 해석을 거쳐 구성된 또 하나의 텍스트로 읽는다. 그녀의 기록이 지닌 가치는 사실성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길준의 텍스트가 다루지 않은 상업 공간의 구체적 국면을 가시화한다는 데 있으며, 그 가시화가 어떤 시선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교차 읽기의 과제이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두 텍스트의 교차 읽기는 텍스트의 단순한 수평 대조가 아니라, 개화기 도시 공간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과 관찰, 인식의 결과를 가시화해 보려는 시도이다. 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한다면, 후자는 “실제로 어떠한가”를 말한다. 따라서 유길준의 규범적 텍스트와 비숍의 관찰

텍스트는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대비는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고정된 결론은 아니다. 유길준의 규범 안에도 당대 조선에 대한 진단과 현실 인식의 단면이 들어 있고, 비숍의 관찰 또한 앞서 보았듯 특정한 시선을 통해 구성된 서술이라는 점에서, ‘규범 대 현실’이라는 단순한 도식만으로는 두 텍스트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어지는 세 장은 이 대비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각기 서로 다른 층위에서 두 텍스트의 어긋남을 검토한다. 시장 장(章)은 경제 질서를 조직하는 원리의 층위에서, 거리 장은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 틀 자체의 층위에서, 상업 주체 장은 누구를 경제적 행위자로 셈하는가라는 사회적 주체의 층위에서 두 텍스트가 갈라지는 지점을 다룬다. 이 간극이 바로 개화기 도시 공간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2. 시장 공간 : 유길준이 제안한 근대 시장 vs. 비숍이 목격한 시전과 난전

1) 유길준의 근대 시장론: 번역으로서의 “통상(通商)”

『서유견문』의 제14편 ‘상인의 대도’ 부분은 유길준의 근대 시장 구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다. 이 절에서 유길준은 서양의 상업 제도를 소개하면서, 국가 부강의 근거로 상업의 발달을 전면에 내세운다. “상업도 또한 나라의 커다란 근본이다. 그 중대한 비중은 농사에 뒤지지 않는데, 정부의 부유함과 국민의 번성함도 실상 상업이 아니면 이뤄질 수가 없다”고 단언하는 그의 언술은, 조선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 위계에서 상업을 억말(抑末)시켜 온 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다. 유길준은 상업을 국가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재정의함으로써, 조선 사회가 내면화해 온 상업 억압의 논리를 반박하고자 했다.

유길준이 구상하는 근대 시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거래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유길준은 서양의 시장이 고정된 가격 표시와 명시적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가제(定價制)에 기반한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개인적 관계나 즉흥적 흥정이 아닌 제도적 규칙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도록 한다. 이는 조선의 관행적 흥정 문화, 신용에 기반한 외상 거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상업적 신뢰 구조와 암묵적으로 대비된다. 유길준의 시선에서 조선의 거래 관행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전근대적 관습이었고, 서양의 명시적 계약 문화는 그것이 지향해야 할 문명의 형식이었다.

둘째는 물리적 공간의 합리적 배치이다. 유길준이 소개하는 서양 도시의 상업 구역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획되고 관리되는 공간으로, 근대적 도시 계획의 이상을 보여준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분화된 전문 상가, 위생과 동선을 고려한 시장 배치,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상업 구역—이러한 공간 구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상업 공간을 가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한다는 근대적 통치와 관리의 표현이다. 이 공간 모델은 종로 시전과 그 주변부를 불규칙하게 채우는 난전, 그리고 도시 곳곳을 유동하는 행상들이 만들어 내는 서울의 실제 상업 공간과는 그 논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셋째는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유길준은 상법(商法)의 정비, 은행 제도의 도입, 상업회의소의 설립을 근대 시장 형성의 필수적인 제도적 조건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성립이 단순히 자연 발생적인 교환 행위의 집적이 아니라 국가 제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야만 완성된다는 그의 인식이다. 상업을 억말시켜 온 기존의 국가 논리를 비판하면서도, 그는 근대적 상업의 발전 역시 국가 제도라는 틀 안에서 조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억압”에서 “제도적 육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길준 시장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번역의

산물임을 주목해야 한다. 유길준이 제안하는 “근대 시장”은 그가 직접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상업 공간을 조선어로 옮긴 것이며, 동시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적 틀을 경유한 결과물이다. 주지하듯 유길준은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서 후쿠자와의 문명개화론을 접했고, 『서유견문』의 서술 체계와 문제의식은 『서양사정(西洋事情)』과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서구의 근대를 문명의 보편적 도달점으로 설정하고 일본의 자기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유길준 역시 서양의 상업 제도를 문명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조선의 상업 공간을 그 기준 아래에서 재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길준 시장론의 구조는 그가 제시하는 근대 시장의 모델이 조선의 현실 상업 공간에 대한 정밀한 관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그것도 일본이라는 매개를 거쳐 굴절된 서구 근대—의 이상적 형상을 참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서유견문』의 시장 서술은 조선의 실제 시장 공간에 대한 정밀한 관찰의 기록이라기보다, 조선이 도달해야 할 상업 질서의 모델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를 곧바로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 기획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길준 또한 조선의 상업 현실이 처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제안은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처방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처방의 준거가 조선 시장의 구체적 조건—시전과 난전의 공존, 행상 네트워크의 유연성, 신용과 관계에 기반한 상업 관행—시전과 난전의 공존, 행상 네트워크의 유연성, 신용과 관계에 기반한 상업 관행—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의 관찰, 대안의 제시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유길준의 근대 시장 구상은 개화기 조선이 “문명”을 향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려 했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적 자료이지만, 동시에 그 자기 재정의가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그 기획의 안과 바깥에서, 실제 조선의 상업 공간은 제도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자체적 논리를 가지고 지속되고 있었다.

2) 비숍이 목격한 시전과 난전: 복합 상업 생태계

비숍이 서울에 도착하여 여행하며 가장 먼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종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시전(市廛) 구역이었다.⁸⁾ 시전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비숍은 가장 좋은 상점이 거대한 종각 가까이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시전을 의미한다. 개화기의 종로 상업 공간은 공식 상업과 비공식 상업이 함께 하는 복합적 장(場)이었다.⁹⁾ 비숍의 기록에는 도랑가 가게(시전 형태로 대로 양쪽 도랑 가장자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고정 점포)와 노상 난전(명석 위에 물건을 펼쳐 파는 형태)이 동시에 등장한다.

비숍이 묘사한 상점은 “온갖 잡다한 종류의 물품이 가게 앞에 진열된 열린 상점들”로 기록된다. 그녀는 비단·면포·지물·철물 등 품목별로 집중된 상점들의 배치를 꼼꼼하게 관찰하며, 각 상점의 규모와 진열 방식, 상인들의 복식과 행태를 세밀하게 기록한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비숍이 포착한 시전 공간의 특징이다. 상품은 점포 내부에 보관되기보다 가게 앞면을 채우며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고, 상인과 구매자의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흥정이 거래의 일상적 형식이라 설명한다.¹⁰⁾ 이러한 매매의 공간 구성은 서양의

8) I.B. 비숍, 앞의 책 제2장 서울의 첫인상과 제4장 조선의 성지 서울 부분에 서울 거리와 상점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9)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시전 체계는 단순한 상업 시설의 집적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상인 집단 사이의 계약에 의해 구성된 특권을 부여받은 공간이었다.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이른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얻은 시전 상인들은 종로 및 광통교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상업활동을 펼치며, 국역(國役) 부담의 대가로 공인된 상업 지위를 유지했다. 육의전(六矣廛)을 정점으로 하는 이 체계는 비단·면포·지물(紙物)·어물·포목·내외어물 등 주요 물자의 유통을 국가 권력의 가시적 통제 아래 두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개화기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시전 중심의 공식 상업 질서는 난전(亂廛)과의 공존·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0) “좁고 먼지 나는 굵은 길의 전 구간에 걸쳐 물건들이 명석 위에 펼쳐져 있었고, 지저분한 흰 무명으로 몸을 감싼 남자 혹은 노파가 하나씩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상점처럼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품을 내부 공간에 진열하며, 고정된 가격표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다. 비숍의 눈에 이 공간은 이국적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익숙한 “근대적 시장”의 질서—고정 가격, 명시적 계약, 내외부의 공간적 분리—와는 이질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비숍의 눈에 띄인 것은 매매 공간의 예측불가한 측면이었다. 고정 가격 체계가 아닌 흥정 관행은 거래를 언제나 상황에 따른 관계 협상으로 만들었다. 가격은 상품의 가치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회적 관계, 거래 시점의 수급 상황, 그리고 양자의 협상력과 언변에 따라 매번 새롭게 구성되었다. 점포 밖으로 흘러나온 상품들, 상점 앞을 오가는 행상들, 좌판을 펼친 노점상들이 빚어내는 광경은 상업 공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며 상시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길준이 구상한 합리적·투명한 근대 시장—용도별로 구획되고, 고정 가격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과는 전혀 다른 상업 공간의 운영 원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무질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안에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상업적 관습, 인적 신뢰 관계, 그리고 품목별 집적(集積)의 공간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정책이나 제도의 언어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종류의 시장 합리성이 존재했다.

더욱 주목해 볼 점은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 혹은 상점에 대한 비숍의 관찰이다. 이들은 국가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하는 상인들로,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상업 공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점포를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임시적·

원래 한 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을 깎으려고 숨이 턱턱 막히도록 실랑이를 벌였다.” 이 부분은 제1장(Chapter I: "First Impressions of Korea"), 구(舊)부산(Old Fusan) 묘사 부분이다. 상점의 흥정부분에 대한 생생한 기술이라 인용해 본다. I.B. 비숍, 앞의 책, 18쪽.

이동적 성격의 판매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상품 구성은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두루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판매 장소 역시 종로 주변부, 도성 내 주요 교통 결절점, 시장이 서는 장터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었다.

비숍은 이 “비공식” 상업 영역이 실제로는 도시 서민의 일상적 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실질적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고가 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도시 하층민에게, 노상 난전은 소량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 협상이 용이한 접근 가능한 시장이었다. 그녀의 묘사에서 노상 판매 상점은 무질서와 활력의 공간으로 비추어진다. 명확한 경계 없이 도시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좌판들, 물건을 팔며 골목을 누비는 행상들, 특정 장소에 집적하여 즉석 시장을 형성하는 상인들의 군집—이러한 광경은 서양인 여행자의 시선에 혼란스럽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도시의 물자 유통을 유연하게 매개하는 오랜 시간 축적된 내재적 논리가 있었다.

결국 비숍이 목격한 개화기 서울의 상업 공간은 고정 점포 중심의 공식 상업 질서와 노상 중심의 비공식 상업 영역이 공존하는 복합 상업 생태계였다. 고정 점포인 시전이 제도적 특권에 기반한 안정성을 제공했다면, 노상 점포인 난전은 그 틈새를 채우는 유연성과 접근 가능성을 제공했다. 양자는 대립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도시의 상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중 구조야말로 조선 상업 공간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독자적 상업의 모습이었다. 유길준이 기획한 근대 시장의 언어는 이 복잡성을 단일한 근대화의 서사로 일괄적으로 논하려 했지만, 비숍의 관찰은 역설적으로 그가 포착하지 못한 실제 상업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3) 근대적 상업 제안과 실천적 상업 공간

이상 살펴 본 유길준의 근대 시장 구상과 비숍이 목격한 실제 상업 공간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이상 대 현실”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간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당대 조선의 상업 공간이 서구식의 근대성 모델로 환원될 수 없는 자체적 논리와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유길준이『서유견문』에서 제시한 시장론은 본질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의 근대성과 관련한 기획이었다. 그것은 국가가 상업 공간을 규율하고 정비함으로써 문명의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계몽”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깨끗하게 정렬된 가게들, 명시된 가격, 표준화된 도량형, 국가가 공인한 거래 질서—이러한 요소들은 서구 근대 시장의 외형적 특징을 이식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상업을 “비문명”에서 “문명”으로 이행시키려는 일종의 위계적 시선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길준의 근대 시장 구상에는 서구 근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전제하고 그 척도로 조선의 상업을 진단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자기 타자화’라는 하나의 논리로 곧장 단정하기보다는, 문명개화의 과제를 절감한 당대 지식인이 자강(自強)의 방편으로 외부의 기준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양상으로 읽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서구의 척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유길준에게 조선을 타자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숍이 목격한 개화기 서울의 상업 공간—종로를 중심으로 한 시전 거리, 그 주변부를 유동하는 난전,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행상들—은 그러한 계몽적 시선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자체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전과 난전의 공존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었다. 시전은 국가와의 계약적 관계 속에서 특권적 상업 공간을 점유했고, 난전은 그 특권의 틈새와 외곽을 채우며 도시 하층민에게 물품을 제공하며 생존했다.¹¹⁾ 두 질서는 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도시 상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 권력, 상인 집단, 도시 빈민이 복잡하게 교섭하는 장(場)이기도 했다.

11)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의 상업 공간을 “미완의 근대” 혹은 “극복해야 할 전근대”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개화기 상업 공간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던 다층적 기능과 내재적 합리성을 제대로 바라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노상 난전 상인들의 장소 선택, 상품 구성, 가격 협상 방식, 단골 관계의 형성—이러한 실천들은 결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질서를 지닌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장을 다룬 이 장에서 두 텍스트의 어긋남은 경제 질서를 ‘어떤 원리로 조직할 것인가’의 층위에 놓인다. 유길준이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 시장을 위로부터 조직하려 했다면, 비숍이 기록한 상업 공간은 관습과 신뢰, 품목별 집적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질서로 작동하고 있었다. 두 텍스트는 시장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서를 시장의 합리성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갈라진다고 할 수 있다.

3. 거리와 도시 경관: 문명의 지표인 도로 vs. 오물과 활기가 공존하는 현실 거리

1) 유길준이 관찰한 청결한 도로

『서유견문』의 도로(道路)와 관련된 항목은 유길준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이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유견문』에서 도로에 관한 이야기는 제19·20편 「각국 대도시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¹²⁾ 유길준은

12) 『서유견문』의 제 19편 각국 대도시 부분 중 유길준이 뉴욕의 도시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한 예로 살펴보자. “전 시중의 도로는 돌조각으로 덮였는데, 길을 닦는 제도라든가 청소하는 방법은 견고함과 청결함을 위주로 한다. 길 한가운데 말이나 차가 다니는 철로를 깔아 행인의 편리를 더하며, 두세 길 되는 철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기차가 다니는 철로를 가설하여 사람들을 내왕시키고 물자를 운송한다. 이를 천하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어떤 사람은 ‘철로가 인가의 창문 높이

각국 도시를 여행하며 도로에 관한 묘사를 빼놓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충분한 폭과 직선의 형태, 양호한 포장 상태,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 관리, 하수 시설의 정비, 그리고 가로등의 설치가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유길준이 생각하기에 문명화된 도시의 도로가 마땅히 따라야 할 표준이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배열의 논리 때문이다. 유길준은 도로의 기능을 단순한 통행의 편의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도로는 물자가 운송되는 통로이자 그 사회가 도달한 문명의 수준을 가시화하는 조건으로 여겨졌다. 유길준에게 도로의 상태는 곧 국가의 경제 상태이며, 상쾌함과 휴식을 주는 도시 도로의 상태는 문명이 진보했다는 증거로 여겨졌던 듯싶다.

도로에 관한 서술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결(淸潔)과 관련한 부분이다. 유길준에게 청결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명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로 더러운 거리는 단순히 불쾌한 공간이 아니라 미개(未開)의 표지이며, 청결한 도로는 문명이 진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여진 듯 하다. 물리적 공간의 상태가 그 사회의 문명 수준을 반영한다는 논리는, 청결한 가로를 갖춘 도시는 '문명국'의 도시이며, 불결한 거리를 방치한 도시는 그 자체로 '비문명'을 보여주는 증거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유길준은 서양의 도로와 공간에 대한 잣은 경탄과 함께 이 기준을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조선의 도로 공간 개조를 위한 처방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 현실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기보다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을 문명의 표준으로 삼아 서술하는 이러한 방식은, 처방을 의도한 저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나,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 주의해 살펴야 할 지점이라 생각된다.

와 같아서 달리는 차바퀴의 요란한 소리가 귓전을 시끄럽게 하며, 또 잠자는 이에게 방해로 끼쳐 좋지 않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이 차를 한번 타보면 황홀하게 바람을 타고 가며 구름위로 넘어 다니는 기분이 절로 난다.”

2) 비숍이 목격한 서울의 거리: 오물, 소음, 그리고 생동

비숍의 서울 거리 묘사는 유길준의 도로론과는 대비가 된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서울 거리에 대한 인상을 살펴 보면 “서울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라 평가하며 13)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 좁고 구불 구불한 골목, 울퉁불퉁한 노면, 빗물과 생활 오수가 뒤섞인 도랑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거리 양쪽으로는 초가와 토담이 이어지고, 집집마다 내다 버린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 있으며, 큰비가 오면 오물이 흘러내려 골목 전체가 흙탕물로 잠긴다. 이 묘사들은 빅토리아 시대 서양 여행가들의 “문명-비문명”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청결을 문명의 지표로, 불결을 비문명의 증거로 삼는 논리는 유길준의 도로론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그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유길준이 조선의 도로를 문명의 기준에 맞춰 개조해야 한다는 처방적 정책을 제안한다면, 비숍은 동일한 기준으로 조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기록하는 외부 관찰자의 서술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숍의 서울 거리 묘사를 단순한 혐오와 비하로 말하는 것은 텍스트를 절반만 이해한 것으로 그녀는 오물과 악취를 서술하는 바로 그 맥락에서, 거리의 혼잡함과 생동감을 함께 포착한다. 좁은 골목을 빠르게 채운 지게꾼은 등에 짐을 산더미처럼 얹고 구슬땀을 흘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행상들은 저마다의 가락으로 물건을 외치며 거리를 누빈다. 물장수는 커다란 물통을 지고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고,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은

13) I.B. 비숍, 앞의 책, 제2장 서울의 첫인상 (pp32) 편에는 그녀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묘사한 거리의 모습이 보인다. “비뚤어진 작은 도로의 대부분은 짐을 실은 두 마리의 소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으며 한 사람이 짐을 실은 황소를 겨우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다. 그 길은 그나마 물구덩이와 초록색의 오수가 흐르는 하수도로 말미암아 더욱 좁아진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버드는 다음과 같이 서울을 묘사한다. “나는 25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거대한 수도 가운데 어느 곳도 서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뜻을 음미하기까지 1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버드의 첫 방문때의 인상과는 사뭇 다른 견해이다.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물가를 향해 줄지어 지나간다. 한켠에서는 양반의 가마가 나팔 소리와 함께 길을 열고, 그 옆으로 황소가 끄는 달구지가 삐걱거리며 지나간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 사이를 뚫고 뛰어다닌다. 이런 혼잡한 광경은 비숍에게 무질서의 표상이 아니라 생활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서울의 거리는 그녀에게 거친 공간인 동시에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공간이었으며 그녀가 서울의 거리 공간에서 느낀 바는 단편적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지점이다.

이 부분에서 앞서 잠시 언급한 비숍의 텍스트가 접촉지대의 상호적 구조를 어디까지 구현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그녀의 서술에서 조선인은 관찰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좁은 골목에서 비숍은 자신을 에워싼 군중의 호기심 어린 응시를 받는 대상이 되고, 시전과 노상에서의 흥정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언변과 셈에 맞서 협상해야 하는 쌍방향의 거래로 그녀를 끌어들인다. 즉 거리의 조선인들은 비숍을 ‘바라보고’, 그녀의 행보에 반응하며, 때로 그녀의 기대를 비껴간다.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위치가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들은, 여행자가 풍경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제국의 시선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되받아쳐지고 상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비숍 자신이 서울을 처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로 단정했다가 1년의 체류 끝에 가장 아름다운 수도의 하나로 평가를 뒤집은 사실 역시, 관찰자의 인식이 현지와의 지속적 접촉 속에서 변형되는 문화횡단의 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비숍의 시선에는 청결·질서·문명이라는 빅토리아적 척도가 여전히 작동하며, 조선의 풍경은 끝내 그 척도 아래에서 측정되고 분류된다. 요컨대 비숍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접촉지대는 권력의 비대칭이 완전히 해소된 평등한 만남이라기 보다, 일방적 재현과 상호적 교섭이 공존하는 미완의 공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비숍이 거리의 별도 사용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의 글에서 서울의 거리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다.

상업, 사교, 오락, 종교, 공동 노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복합 생활 공간이다. 포목전 상인은 가게 앞 거리에 천을 늘어놓고 흥정을 벌이며, 아낙네들이 우물가나 냇가로 모이는 이른 아침의 거리는 동네의 소식이 교환되는 비공식적 사교의 장이기도 하다. 상례나 혼례가 있는 날이면 거리는 행렬로 꽉 차 일상의 통행이 잠시 멈추고, 거리 자체가 의례의 무대로 전환된다. 비숍이 포착한 공간들에서는 ‘거리’와 ‘생활’의 경계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거리는 단순한 이동을 위한 길이 아닌 다양한 생활이 밀집된 형태로 펼쳐지는 무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길준이 구상한 도시 공간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의 생활용 조선 도로이다. 유길준이 제안한 근대 도로는 용도별로 구획되고 관리되며, 이동의 기능에 충실하게 설계된 공간이다. 보행자와 차마(車馬)가 분리되고, 상업은 가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거리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가 구상한 공간에서 거리는 어디까지나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를 잇는 매개체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되지 않는다. 반면 비숍이 기록한 서울의 거리는 구획과 위계가 모호하다. 상업과 이동과 사교와 의례가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거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충돌하고 타협하는 장소이다. 이 두 공간의 간극 — 기능적으로 정화된 근대 도로와 생활이 가득 차 넘치는 전근대적 거리 — 은 단순히 미개와 문명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도시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본다.

3) 도시 경관의 다층성

유길준의 규범적 도로론과 비숍의 현장 관찰 사이의 간극은 개화기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근대 도시 공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결여”와 “미달”의 공간이라는 접근법과, 다른 하나는 전근대적 도시 생활의 복합적 논리와 활력이 응축된 공간이라는

접근법이다.

우선 결여와 미달의 측면을 보면 조선의 도로는 포장도, 하수도도, 가로등도 없고, 충분한 거리의 폭도 없는 근대적인 거리 기준에서 보면 형편없는 자격미달의 도로이다. 유길준이 제시한 근대 도로의 요건들은 그것이 실현된 공간을 기준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공간을 결핍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기준에서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 “아직 되지 못한” 것, 즉 미래의 기준으로 현재를 경시하는 시선아래 놓여 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분명할수록 현재의 상태가 더 깊은 결핍으로 여겨지는 논리라고 할까.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은 상술한 결핍의 언어가 아닌 포장되지 않은 흙길에 사람들이 그 위에 자리를 펼 수 있고, 구획되지 않은 공간이기에 상업과 이동과 사고가 한꺼번에 가능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골목의 구불구불함은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생활의 오랜 교섭이 남긴 흔적이었으며, 도랑의 오수는 그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밀집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첫 번째 측면이 근대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도로와 공간을 본다면, 두 번째 측면은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으로 도로를 바라보며, 비숍의 기록은 독자들에게 도로의 다른 면면을 상기시킨다.

조선의 도시 공간은 수백 년에 걸쳐 거주와 생활과 생업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도시와 거리는 근대 도시라는 잣대 앞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잃고 있었다. 근대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이기에 오랜 질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근대 기준 앞에서 옛 질서는 결핍이 되어 버리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길준의 근대적 처방과 비숍의 관찰은 현실의 양측면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유길준의 도로에 관한 논변은 현실의 복잡한 면을 단일한 근대적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었으며 생활의 밀도와 공간의 활력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비숍은 서울의 도시 거리에서 오랜 시간의 흔적이 여전히 작동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저술이 현재까지 중요한 사료로 읽힐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측면을 세밀히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텍스트는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화기 서울 거리의 역사적 실상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유길준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당대의 개혁 주체들이 도시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하려 했는지를 읽을 수 있고, 비숍의 텍스트를 통해서도 재편의 대상이 된 공간이 실제로 어떤 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지 읽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을 다룬 앞 장과 전주어 보면, 거리를 둘러싼 두 텍스트의 관계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시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질서의 원리를 전제했다면, 거리에서는 오히려 같은 인식 틀을 공유한다. 청결을 문명의 지표로, 불결을 미개의 표지로 삼는 위생-문명의 척도는 유길준과 비숍 모두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갈리는 것은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그 척도를 어디에 쓰는가이다. 유길준은 그 척도를 조선을 개조하기 위한 처방으로 돌려놓았고, 비숍은 같은 척도로 조선을 진단하면서도 그 안에서 척도로 환원되지 않는 생활의 활력을 함께 기록했다. 요컨대 거리를 다룬 이 장의 초점은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 틀 자체’의 층위에 놓이며, 동일한 시선이 처방과 기록이라는 서로 다른 실천으로 분기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III. 상업 활동의 주체

1. 유길준의 상인 주체 : 추상적인 근대 경제 인간

『서유견문』의 상업 서술에서 상인 주체는 대체로 추상적·보편적 존재로 서술된다. 유길준은 상업 제도, 시장 질서, 신용 거래, 무역 원리를 논하면서도 상인의 성별, 신분, 계층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의 텍스트 안에서 상인은 묵시적으로 남성이며, 교육을 통해 근대적 상업 지식을 습득한 중산층의 주체로 상정되고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장부를 기록하며 어음과 신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 추상적 상인은, 서양과 일본의 상업 도시

에서 유길준이 관찰한 상인 계층의 이미지를 조선의 미래에 투사한 것이다.¹⁴⁾ 이는 근대 경제 담론 일반이 지닌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길준 자신의 계층과 남성이라는 위치가 만들어낸 시야의 한계이기도 하다. 양반 출신으로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에게 ‘상인’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제도화된 교양인의 모습으로 떠올랐을 것이며, 시장 바닥의 일상적 상업 현실은 그가 상상하는 이미지였을 것 같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길준의 상업론이 지닌 방향에 있다고 본다. 그는 분명 조선의 전통적인 상업 멸시 관행에 맞선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 아래 상업을 천시하고 상인을 말업(末業)의 종사자로 보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유길준은 상업이 국가 부강의 핵심이며 상인이 문명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역설한다. 이 점에서 그의 상업론은 분명 시대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상업을 문명화 혹은 근대화의 표준에 맞추어 개조하는 것”이지, “상업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유길준이 만들고자 한 상인은 근대적 지식과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인이었으며, 당시 조선의 시장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던 다양한 비공식 상업 주체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길준이 상상한 근대 상인과 당대 조선 시장의 실제 주체들 사이의 괴리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난전(亂廛) 상인의 경우를 보자. 육의전(六矣廛) 체계 바깥에서 공인되지 않은 채 거래를 이어가던 난전 상인들의 상업 행위는 유길준이 상상한 근대적 상업 — 회사 조직, 장부 관리, 신용 거래 — 과는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당대 서울 시장의 실질적 상업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보부상(裸負商)의 경우는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국의 장시(場市)를 연결하며 물산을 유통시킨 보부상은 근대 이전 조선의 상업 네트워크를

14) 유길준, 앞의 책, 387-393쪽에 서술된 상인의 직분, 상인의 공부, 상인이 경계할 점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실질적으로 움직인 핵심 주체였으며 이들은 엄격한 내부 규율과 위계, 상호 부조의 조직 원리를 갖추고, 일정한 정도로 자신들의 상업 질서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¹⁵⁾ 그러나 이들의 조직 원리는 유길준이 서양에서 배워 온 회사 제도나 상업 조합의 언어로는 포착할 수는 없다. 유길준의 텍스트 안에서 보부상은 근대화해야 할 전근대적 상업 형태의 일부로 처리될 뿐, 그 자체의 내적 논리를 가진 상업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유길준의 상업론은 근대 상업의 이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선구적이었으나, 그 이상을 설정하는 방식이 오랜 시간 조선의 상업을 이끌어 온 상업의 실제 주체들을 주변화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명화된 상업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그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들 — 난전 상인, 보부상 — 은 근대화의 주체가 아닌 개조의 대상, 혹은 사라져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비숍이 기록한 다양한 상업 주체 : 시전 상인, 보부상

비숍의 서술은 개화기 상업 공간의 실제 주체들을 훨씬 다층적으로 서술한다. 유길준의 텍스트가 추상화된 근대 상인을 구상했다면, 비숍의 텍스트는 구체적인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를 가진 상업 주체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다. 그녀가 포착한 서울 상업 공간의 행위자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며, 이 세 유형은 각각 서로 다른 상업 논리와 사회적 위치를 대표한다. 첫째, 시전 상인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남성이며 세습적 상업 가문에 속한다. 비숍이 관찰한 시전의 풍경은 서양의 상점 문화와 너무나 다르다. 시전 상인들은 좁고 길쭉한 점포 안에 깊숙이 앉아,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

15) 조재곤, 『한국근대사회와 보부상』, 해안, 2001.

으로 영업한다. 점포 앞으로 상품을 늘어놓기는 하되, 상인 스스로 나서서 손님에게 말을 건다거나 물건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일은 드물다. 비숍은 이 수동적이고 과묵한 판매 방식을 서양의 활발하고 공격적인 상업 관행과 명시적으로 대비하면서, 조선 상업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기록한다. 상업을 생업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 역설적 태도는, 사농공상의 위계 아래 상인이 견뎌온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비숍이 이를 단순한 상인의 무기력으로 읽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지식과 시선이 지닌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보부상(褸負商)이다. 비숍은 보부상 조합 조직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 하며, 이들을 단순한 행상 집단이 아닌 자체적인 규율과 연대를 갖춘 조직화된 상업 공동체로 이해한다. 비숍의 기록에서 보부상은 몇 가지 점에서 서양의 상인 조합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엄격한 내부 위계와 규약을 갖추고 있었고, 조합원 사이의 상호 부조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분쟁 발생 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적 사법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부상(負商, 짐을 등에 지는 상인)과 보상(褸商, 보따리를 드는 상인)은 취급 품목과 이동 방식에서 구분되었으나, 전국의 장시(場市)를 연결하는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일장에서 오일장으로 이동하며 계절에 따라 품목을 달리하는 이들의 상업 행위는, 정기적인 장시 체계가 지방 경제를 연결하는 조선 특유의 유통 구조 위에서 움직였다. 비숍이 특히 흥미롭게 관찰한 것은 보부상들의 상도(商道) 관행이었다. 같은 조합원에게는 일정한 가격과 거래 조건을 보장하고, 타 조합원의 영업 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돕는 그들만의 관행들은, 그녀에게 비공식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상업 윤리의 체계로 보였을 것이다. 이들은 신분제의 질서 안에서는 천민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고, 양반 관료들의 수탈과 간섭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정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보부상 조직은 자신들의 내부 결속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상업 유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비숍이 이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흥미롭게도 상당한 존중을 보여준다. 그녀는 보부상을 낙후된 전근대 상업의 잔재로 보는 대신, 자체적 논리와 공동체적 윤리를 갖춘 조직된 집단으로 이해한다.

이 유형들의 상업 주체들이 공존하는 개화기 서울의 상업 공간은, 유길준이 구상한 단일한 근대 상업의 방향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 다단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점포 안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시전 상인, 전국의 장시를 연결하는 보부상은 각각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업 윤리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비숍이 이 유형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조선의 시장에서 근대 상업 이상(理想)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찰 덕분에 그녀의 텍스트는 유길준의 텍스트가 비워둔 자리를 채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3. 상업 주체의 다양성

비숍의 서술이 드러내는 상업 주체의 다양성은 신분상 하위 집단이 상업 네트워크 안에서 구축한 독자적 권위의 문제이다. 신분의 차원에서는 보부상의 사례인데, 보부상은 조선의 신분 질서 안에서 명백히 최말단에 위치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양반 관료의 엄청난 수탈에 노출되어 있었고, 지방 수령의 눈 밖에 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취약성이 이들로 하여금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자율적 조직 논리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도록 했다. 조합 내부의 위계와 규약, 상호 부조의 원칙,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동료 조합원 보호의 의무 — 이 모든 것은 국가 제도의 보호 바깥에 있던 집단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비공식 제도였다. 신분이 하위에 있을수록 공식 제도에 기댈 수 없었고, 공식 제도에 기댈 수 없었기에 자신들만의 비공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했다. 보부상의

조직화는 따라서 신분적 열등의 증거가 아니라 당시의 조건 안에서 발전시킨 집단적 지혜의 산물이었다.

이 사례가 함께 보여주는 것은, 개화기 상업 공간의 주체 구성이 어떤 단일한 모델로도 환원될 수 없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길준이 구상한 근대적 상인 주체 — 교육받고 제도화된 지식을 갖추며 공식 영역에서 활동하는 남성 — 는 이 복수성의 극히 일부분만을 포착할 수 있는 틀이었다. 현실의 상업 공간은 그보다 훨씬 다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신분상 억압된 조건에서 오히려 조직적 결속을 강화한 보부상들, 공인된 제도 바깥에서 도시 유통의 실질적 토대를 이루는 난전 상인들 —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상업 논리와 실천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그 논리들은 때로 서로 경쟁하고 때로 보완하면서 개화기 서울 상업 공간의 실제적 지형을 구성했다.

결국 비숍의 기록이 갖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그녀가 조선 상업을 이끈 다양한 주체들을 자신의 텍스트 안에 비교적 균등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빅토리아 시대 문명관 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한 상업 이상을 전제하지 않은 외부 관찰자의 위치는, 역설적으로 유길준의 내부자적 처방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업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유길준이 미래에 만들어 나가야 할 상업 주체를 논했다면, 비숍은 이미 존재하는 상업 주체들을 기록했다. 이 차이가 두 텍스트가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이고, 개화기 상업 공간의 역사적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두 텍스트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과 거리를 다룬 앞의 두 장이 각각 경제 질서의 원리와 공간을 보는 인식 틀을 문제 삼았다면, 상업 주체를 다룬 이 장의 초점은 ‘누구를 경제적 행위자로 셈하는가’라는 사회적 주체의 층위에 놓인다. 유길준의 추상적 상인 주체가 교육받고 제도화된 남성 상인을 표준으로 상정함으로써 난전 상인과 보부상을 시야 밖에 두었다면, 비숍의 기록은 신분 질서의 하위에 놓였던 이들이야말로 당대 상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주체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 두 텍스트가 갈리는 지점은 상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상업의 주체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 인정의 경계가 신분·성별·계층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의 문제로 모인다.

Ⅳ. 소결 : 시선의 교차 읽기

이 논문은 『서유견문』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의 교차 독해를 통해 개화기 조선 도시 공간의 생활세계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았다. 두 텍스트는 서로 다른 인식에서 생산되었으며, 이 차이가 오히려 독자에게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유길준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면, 비숍의 관찰자의 시선은 “실제로 어떠한가”를 묘사한다. 이 두 시선의 교차를 통해 우리는 단선적 근대화 서사에 가려진 개화기 도시 생활세계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세 장은 같은 결론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에서 두 텍스트의 어긋남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시장을 다룬 장에서는, 경제 질서를 조직하는 원리의 층위에서 유길준이 구상한 근대 시장의 이상과 시전·난전이 공존하는 실제 상업 생태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차이를 “미완의 근대화”로 해석하는 것은 당시 조선 상업 공간 자체의 논리와 역동성을 부정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거리와 도시 경관의 논의에서,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 틀 자체의 층위에서, 문명의 지표로서의 도로 이상과 오물·활기가 공존하는 현실 거리 사이의 간극은 개화기 도시 공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상업 주체를 알아본 장에서는 비숍이 포착한 노점 행상·보부상·시전 상인의 다양성은 유길준이 제시한 추상적 근대 상인 주체가 누구를 경제적 행위자로 셈하는가라는 주체 인정의 층위에서 현실의 다양한 상업 주체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도 알아보았다. 본고는 개화기 도시 생활세계를 이상과 현실,

내부자와 외부자, 규범과 실천, 공식과 비공식이 다양하게 교섭하는 복합적 논리와 생활 세계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시도로 두 가지 텍스트에 한정된 논의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당대의 신문 기사, 관찰 보고서, 상업 문서, 그리고 조선인 여성의 시각이 담긴 자료들을 보완하여 개화기 도시 생활세계의 다층적인 면모를 더욱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 유길준, 이한섭 역, 『알기 쉽게 번역한 『서유견문』』, 박이정, 2021.
-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London : John Murray, 1898; repr.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 Bird, Isabella L. (Isabella Lucy), *Korea and her neighbors ;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 Chicago F.H. Revell Co., 1898. (www.archive.org)
- I.B.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urs)』, 2024.

2. 논저

-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 김남혁, 「제국주의와 여행서사 -메리 루이스 프렛의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0, 2015 131-161쪽.
- 김희영,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2007.
- 메리 루이스 프렛,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2015.
- 신문수,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이광린, 「유길준의 개화사상: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75·76, 1977.
- 우찬제,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수사적 상황과 간접화된 풍경」,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7(3), 2021, 167-191.쪽.
- 장인성, 「유길준의 문명사회 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 유길준, 후쿠자와 유키치, 존 힐 버튼의 사상연쇄」, 『개념과 소통』 23, 2019.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 조재근,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2001.
- 홍순애, 「근대계몽기 여행서사의 환상과 제국주의 사이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 2010.
- Chakrabarty, Dipesh,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 Routledge, 1992.

Abstract

A CROSS-TEXTUAL APPROACH TO URBAN SPACE AND THE
LIFEWORLD IN THE KAEHWA PERIOD: MARKETS, STREETS,
AND COMMERCIAL ACTIVITY IN SŎYU KYŎNMUN AND
KOREA AND HER NEIGHBORS

SIM MYOUNGJOO (SIM, MYOUNG JOO)

This paper examines the lifeworld of urban space in Jose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s recorded in Yu Kil-chun's *Sŏyu kyŏnmun* (西遊見聞, 1895) and Isabella Bird Bishop's *Korea and Her Neighbors* (1898), focusing on three axes: markets, streets, and commercial activity. Although the two texts address the same time and place, they were written from markedly different perspectives and frames of understanding. Where Yu Kil-chun adopts a normative gaze that translates and assimilates the institutional and spatial principles of Western civilization, Bishop writes as an on-the-ground observer of Joseon, recording the complex realities of urban life as she encountered them.

A close reading of the two texts reveals that the urban spaces of the Enlightenment period possess a multi-layered character that cannot be reduced to a linear narrative of modernization. In the domain of market space, a clear gap exists between the modern commercial order that Yu Kil-chun envisions and the co-existence of licensed shops (*sijŏn*) and unlicensed street stalls (*nanjŏn*) that Bishop witnessed. In the domain

of streetscapes, there is a striking contrast between the ideal of roads as indices of civilization and a lived reality in which filth, noise, and vitality coexist. In the domain of commercial agency, whereas Yu Kil-chun posits an abstract merchant subject, Bishop's account foregrounds the lower classes and itinerant peddlers (pobusan) as the actual agents who animate the commercial landscape. This method of cross-reading the two texts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lifeworld of Enlightenment-era urban life in its multiple dimensions — as ideal and reality, insider and outsider, norm and practice.

Key Words : Enlightenment era (Gaehwagi), urban space, lifeworld, Seoyu Gyeonmun, Korea and Her Neighbours, Yu Gil-jun, Isabella Bird Bishop

